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산업의 전망과 과제 -대전시의 사례에 대한 SWOT 분석-

권병욱^{1*}

The Prospect and Project of Convention Industry for Regional Vitalization -SWOT analysis on the case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Byung-Oug Kwon^{1*}

요 약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이동이 용이해 지면서 컨벤션 참가의 기회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나 기업 및 민간부분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 정보교류를 위한 컨벤션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중요한 산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체도 지역의 발전과 컨벤션 산업을 연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컨벤션 산업에 대한 노력과 기반시설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전시는 우수한 컨벤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개최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부족한 상태로 컨벤션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 정책이 자칫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Developed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transportations, communication systems have given a lot more opportunities to people to participate in convention recently. this tendency is not only for the Government offices or major companies but also for civic activities of many different fields in order to find the solutions and convoke the cooperations of their facing problems. Both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ffices trying to channel the convention industry and local development as well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that the city of Daejeon had tried to it's best to 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especially, Daejeon has Daedeok research complex which gives tremendous motive to establish convention industry which is also one of the main projects of Daejeon future developing plans. moreover I have suggested few matters needed to be solved

Key words : 컨벤션(Convention), 지역 활성화(Regional Vitalization), 관광자원(Tourism infrastructure), 대전(Daejeon)

1. 서 론

최근 지역혁신, 지역활성화 혹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테제를 둘러싸고 왕성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수의 활성화된 지역과 다수의 정체되고 피폐한 지역간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지역 간 변영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이다.

¹한남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권병욱(kwon-b@hanmail.net)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이후 막강한 중앙정부지배의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1995년에 OECD 선진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혁신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과정에서 심화시킨 지역간 격차의 해소가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 정부는 이러한 지역간 격차의 해소라는 과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정책실현의 논리적 근거

를 제시해 왔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지역경제시스템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제도적 내지는 사회적 조건을 배경으로 논리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설정의 배경에는 지식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시대상황과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조는 정책적 합의의 불충분한 응용을 초래하거나 제 정책이 실제적일 뿐 만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이 오늘날 지역의 산업조직이나 산업구조와 적절히 연계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지역의 실체에 기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재래적 산업구조 대신에 첨단산업으로만 정도되는 정책의 편향적 사고를 견제하며 선진사례의 무조건적 수용이 초래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력 감소와 지역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합의를 대전지역의 컨벤션 산업에 비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의 영역으로서 컨벤션 산업을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앞을 다투어 컨벤션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컨벤션 산업정책과 컨벤션의 기반시설등의 현상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전시가 컨벤션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 제시하는데 국한된다.

본 연구는 II장에서는 지역 활성화와 컨벤션 산업을 다른 연구 성과들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정책, 그리고 지역 활성화와 컨벤션 산업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대전지역의 개요와 컨벤션 현황을 SWOT에 비추어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 한 후 V장에서는 IV장의 분석결과에 미루어 대전지역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지역 활성화나 지역경제의 부흥에 답하기 위한 노력들은 고전과 경제학의 마·샐(A. Marshall) 이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산업의 지역적 집중과 산업·기업입지의 문제를 다룬 경제지리학이나 지역경제학, 공간경제학, 경영학분야에서 국가나 지역의 특정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로 이루어진다. 산업집적에 의한 외부경제 효과

[23], 시너지효과[14], 유연전문화론[24], 자기조직화론[21], 클러스터론[25,26] 등이 연구의 계보를 형성한다. 지역에 내재한 제 환경과 사회적 관계(embeddedness)를 강조하는 일련의 경제사회학자들의 논의[20], 네트워크와 지역산업[28], 하청관계에 있어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적 거래의 이점[19]을 설명하는 논의들이 기존의 시장중심의 논리를 대체하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는 논외로 한다. 단, 컨벤션 산업은 통신 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모임이 빈번해 지고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시대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매개하는 산업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컨벤션 산업과 지역 활성화를 다른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컨벤션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컨벤션 산업은 회의장, 숙박시설, 음식점, 오락시설, 관광업체들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종합적인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이다. 컨벤션 참가자와 주최자가 지출하는 소비로 인해 직·간접적 경제승수효과와 개최지에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초래한다는 지적[15]과, 컨벤션이란 개최회사나 협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산업의 공급업체들, 호텔, 리조트 그리고 회의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 나아가 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사회 및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29],고 하는 주장이 컨벤션 산업과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대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컨벤션 산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컨벤션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컨벤션에 대한 연구자체가 호텔경영학이나 관광학 영역으로 한정되어온 학문적 분위기의 책임과 더불어 현상학문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컨벤션 산업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나 조직론적 논의

- 1) 시너지효과는 안소프가 경영전략론에 도입한 개념으로 다각화 전략과 연관지어 논의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판매시너지, 생산시너지, 투자시너지, 매니지먼트시너지의 4가지로 분류한다 (Ansoff 1965).
- 2) 유사성과 보완성을 중핵으로 하는 클러스터는 글로벌화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인프라, 선진적인 고객의 요구나 내재적 지식(embedded knowledge) 등이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개념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닌 대학, 연구기관에 잠재된 기술적 지식의 활용, 금융기관, 지방자치체 등 다양한 조직에 의한 지원을 중요한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M. Porter 1990).

만 왕성하게 전개되어 왔을 뿐 지역산업구조, 지역 활성화와 사회구조를 일체적으로 다루려는 노력들은 경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컨벤션 산업진흥을 위한 CVB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7], 컨벤션 전담 기구에 의한 홍보 전략과 전문 인력양성,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의 충족을 통한 컨벤션 유치 전략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인식제고와 법적, 제도적 지원, 추진주체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컨벤션 연구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 또, 문화관광 창출을 위한 컨벤션 센터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창원 컨벤션센터의 가치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6] 여기서는 문화관광 경영아카데미의 신설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시야에 넣어 그들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것은 컨벤션과 지역을 동시에 파악한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오정환[8]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며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써 항공료의 인하, 국제회의 시설의 대형화, 금융혜택의 지원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김재민[2], 김용관[1])은 전문 인력의 양성,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전개, 컨벤션 관광인프라의 강화를 주장하여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현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컨벤션 산업과 지역을 주제로 한 대구지역의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5]에서는 지역 컨벤션의 진흥을 위해서 국제회의 도시의 선정과 투자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회의 및 숙박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의 정비 및 구축, 국제적인 네트워크형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광주, 전남의 컨벤션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0]에서 광주, 전남의 광역적 연계에 의한 종합적인 경제 운용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또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업종 협의회의 활성화를 주문한다. 그 외에도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부산지역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컨벤션 환경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 직항 국제선 항공노선과 항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광역교통망의 구축, 호텔 숙박시설의 개선, 전문인력 양성, 컨벤션 관련업체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각 국가들은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과 로비를 전개하고 개최지로서의 결정적인 우위성을 확보하거나 개최지의 이미지를 명확히 어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국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 이미지

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즉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국들의 노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컨벤션 정책은 컨벤션 산업진흥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을 주장하고 있을 뿐, 지역 내에 잠재하는 소프트웨어의 창조, 발굴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드웨어의 구축과 정비를 통하여 컨벤션 산업의 잠재력을 형식화 할 수 있으며 그 형식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인은 소프트웨어에 존재한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컨벤션 정책과 지역

컨벤션 산업은 직접 관련된 산업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컨벤션 산업이 단순히 회의나 전시분야만이 아니라, 회의관련시설의 정비나, 숙박, 교통등의 서비스 개선, 주민들의 환대정신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지역홍보등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컨벤션 산업은 항공회사, 철도회사, 버스회사, 지하철, 택시업계, 호텔, 대학, 연구소, 회의에 직접 관련하는 기업, 컨벤션 센터, 통역 및 지원 산업, 레스토랑, 극장, 지방자치단체, 지역 금융기관이 일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발신하며 컨벤션 유치활동, 관광루트의 개발을 통하여 최적화 상황을 지향하여 지역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⁴⁾

우리나라의 컨벤션 산업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며 컨벤션 산업과 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컨벤션은 회의가 개최되는 인간의 활동공간으로 컨벤션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호텔, 리조트, 육상운송체계, 레스토랑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들 시설은 컨벤션 센터의 인근에 입지하며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컨벤션은 기후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최특성에 의해 관광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개최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미지에 따라 재방문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개최지에 대한 정보전파에 의해 새로운 방문객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관광과 상호

3) 동 연구에서 지역 CVB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주민들의 환대정신을 지적하고 있어 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로 평가된다.

4) 지역은 각자의 개성적인 산업지역을 형성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기업, 행정기관, 여행업자, 호텔업계등을 통한 포괄적인 진흥책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용한다. 보다 적극적인 논의는 국제회의 도시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정대상 도시 안에 전문회의 시설이 있거나 그 시설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둘째 지정대상 도시 안에 숙박시설, 교통시설, 교통안내 체계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셋째 지정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이러한 기준은 자원과 사회적 기반의 충실이 컨벤션 산업 진흥의 기초요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컨벤션 산업은 지역의 사회적 기반과 관광, 관련산업을 통합적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의 결합을 통하여 산업으로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국제회의 도시지정은 앞에서 언급한 적절한 국제회의 시설, 전시시설,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 및 관련업체, 교육기관, 국제회의산업육성관련 규정의 제정여부, 국제회의 산업 육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 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컨벤션의 개최와 참가자를 유인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부차적으로 달성되기 때문이다.⁶⁾

컨벤션과 지역을 연계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 활용하고 편의를 증진시켜 어떻게 컨벤션에 적극 활용하느냐에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컨벤션 산업을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호텔, 레스토랑등의 식음료 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시설, 숙박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대체로 컨벤션 관련시설로 간주되며 이들 관련시설과 고객서비스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컨벤션 산업은 종합산업으로 규정되며 컨벤션 개최에 따라 지역의 관광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광과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산업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섭하며 상호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컨벤션과 관광, 지역발전의 동일시가 가능하며 회의 참가자,

기획자, 관련산업이 일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전시시설과 회의시설을 전제로 이들 각 관련산업의 협력과 경쟁이 지역활성화의 주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컨벤션 산업역시 컨벤션 시설과 관련산업의 연계하에 즉 지역의 다양한 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절에서는 대전시의 컨벤션 산업정책 및 현황을 검토하고 대전시에서 컨벤션 산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 조건들을 살펴 볼 것이다.

4. 대전의 컨벤션 정책과 현황

대전시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컨벤션 산업육성정책은 이미 1997년의 대전도시 기본계획을 통해서 대전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벤트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제화관련 기초, 기반시설의 조성을 추진해 왔다. 엑스포 과학공원과 컨벤션센터, 대덕연구단지의 연계와 기존의 시설물의 활용을 통하여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컨벤션, 과학,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4.1 대전시의 컨벤션 전망

대전시는 1995년 엑스포 사후활용 도시설계계획을 수립하였고 1999년에는 국제도시로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장 건립계획을 책정하였다. 1993년에 건립된 엑스포 과학단지과 대덕 연구단지, 대덕 R&D 특구와의 결합을 통한 과학 공영화 사업은 대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컨벤션 산업의발전을 위한 동력이며 대전정부청사, 3군 본부, 그리고 지역 내 많은 교육연구기관이 그 계획의 중심에 배치하고 있다. 대전 비전 2020(2000-2020)은 지역관광자원의 보호와 관리, 편의시설의 정비와 시설확충, 관광상품의 개발, 국제적 쇼핑센터 및 위락지구 설정등을 통한 회의전시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엑스포 과학공원과 컨벤션센터를 연계하고 국제학술교류와 종합무역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제회의시설 및 이벤트장을 마련하고 국제화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도시기본계획(1997-2016)에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간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5)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문화관광부(2005년)의 기준에 따른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회의 시설은 전문회의시설과 준회의시설로 나누어지고 전문회의시설은 20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30인 이상 수용)10실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개최에 필요한 호텔연회장, 공연장, 체육관등을 갖추어야 한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3조 2,3,4,5항 참조)

따라서 대전시는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국제 무역전시관 인근에 부지 95,272 평 규모의 국제회의장 건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1조 2173억 원(국비 5,000억 원, 민간 7,107억 원, 기 투자 226억 원)을 책정하였다. 주요시설로는 기술교류와 무역진흥시설로 테크노 커머셜 콤플렉스(Techno Commercial Complex), 국제교류센터와 전시 및 회의시설(전시장과 컨벤션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에 대전컨벤션 센터 설립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난 2005년에 대전 컨벤션 뷰로 설립의 타당성 조사보고가 이루어 졌다.

이 보고서는 대전지역의 컨벤션 산업 경쟁력을 서울(34.6%)과 고양(13.8%), 제주(11.9%)에 이어 4위로 평가하고 교통의 중심지이자 대덕 과학단지내의 제 연구소, 대전지역의 대학, 그리고 3군 본부, 정부청사의 입지에 의해 대단히 높은 컨벤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 CVB(Convention and Visitor Bureau)설립과 대전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는 2007년의 경우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1건, 2009년에 23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외국인 참가자는 2007년에 47,526명, 2009년에 51,74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대전시 2005, 79)7).

한편, 대전시가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기구의 대전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대전지역의 컨벤션 전망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유엔과 한국통계청이 합작으로 설립하는 국제통계 발전센터의 대전유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유네스코 산하 세계과학 도시연합 과학도시 연구센터의 대전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과학 도시간의 국제적 네트워크인 WTA(World Technopolis Association)가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9개국 51개 회원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입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이 아닌 컨벤션 산업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대전시는 2006년의 국제진동제어 학술대회, 2007년 충격공학 국제학술대회, 2008년의 국제지과 교정학회나 국제나노 컨퍼런스, 2009년의 제트류 및 전단류 현상에 관한 국제회의등의 개최가 예상되고 있어 대전의 컨벤션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회의의 개최는 개최지의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벤션 인프라라는 상세히 검토되어야 할 항목이다.

4.2 대전의 컨벤션 인프라

컨벤션 인프라라는 구성요소의 물리적 속성 측면에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하드웨어는 물질계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는 정보나 지식, 감성, 서비스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관광목적지의 경쟁력 결정요소로서 공급구조와 질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호텔, 교통, 쇼핑시설, 문화위락시설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서비스, 경영, 조직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의 인프라는 컨벤션 개최를 추구하는 공급 측의 조건과 수요 측의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공급 측의 인프라로서 컨벤션과 숙박시설을 겸하는 호텔현황과 전시장 가용면적을 검토하고 수요측면의 인프라로서 경쟁여건, 수요의 가능성으로 나누어진다.

4.2.1 컨벤션 호텔 및 전시시설

컨벤션 센터는 객실없이 한 지붕아래서 회의와 전시를 개최하도록 설계된 대중들의 집회시설이며 식음료 및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소유된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금지원 아래서 지정업체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대전지역의 컨벤션 센터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센터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컨벤션 센터처럼 주시설, 지원시설,부대 시설과 컨벤션 담당을 갖춘 지역호텔들이 컨벤션 센터를 대신하고 있다. 컨벤션 호텔은 컨벤션개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호텔로 컨벤션 시스템에서는 1차적 인프라로 간주되며 회의시설이나 전시, 이벤트,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주요호텔 내에는 다수의 회의장 시설이 있지만 그 규모가 200평 미만인 소규모가 대부분이고 수용인원의 규모는 유성호텔 내에 700석 규모의 시설이 있을 뿐 대부분 호텔내의 회의장 규모는 300석 미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국제회의는 물론 국내회의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 시설의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안 휴업상태에 있던 리베라 호텔이 최근 재개점하면서 상황은 다소 호전되는 듯이 보인다. 리베라 호텔의 경우, 대회의실이 1개 실(착석800명, 입석 1300명), 중 회의실이 5개실(착석 200인실 3개, 착석 300인실 2개실)이 있으며 이들 회의실은 이벤트나 축제, 쇼, 강좌, 전시, 세미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주차시설은 본관에 300대 용, 부설 주차장에 15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서양식(침대)이 89개실, 한국형 온돌식이 85개실로 총 174개실이 정비되어 있다. 이러한

7) 이러한 추정은 2003년의 14건, 외국인 참가자수 22,552 명에 비해 급격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전지역에서 컨벤션이 가능한 호텔은 유성, 레전드, 새서울, 아드리아, 로얄, 스파피아, 흥인호텔등으로 그것도 중소기업의 컨벤션에 적합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이 단순한 컨벤션 이외의 전시나 이벤트를 소화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숙박시설의 객실 수 현황에 있어서도 관광호텔급이 1,253개실, 일반호텔이 361개실이고 79.1%에 해당하는 6,512개실이 중저가 숙박업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컨벤션 유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떠나서 국제회의나 대규모 국내회의를 위한 숙박시설로서 적정 수준이하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특히, 숙박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청결정도, 편안함, 안정성, 회의장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호텔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컨벤션 개최지로서 이러한 요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컨벤션 참가자들은 숙박시설의 요건에 의해서 컨벤션의 성과가 좌우되며 추가 방문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시시설은 과학기술 관련 산업 엑스포나 무역엑스포 등이 개최되는 시설로 각 참여자(국)들 간에 상품에 대한 정보교류나 상품소개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장이다. 따라서 전시장 여건은 컨벤션 개최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다양한 유형의 회의장을 갖춘 전시시설은 개최지의 컨벤션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적절한 규모의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4,200㎡의 대전 무역전시관(KOTREX)을 제외하면 다른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컨벤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시시설 면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KOTREX의 전시면적 뿐 만 아니라, 부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회의실 수나 회의실 수용규모 역시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실제적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4.2.2 교통수단

컨벤션 개최지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중의 하나가 개최지로의 접근성이다. 접근성은 개최지 및 회의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으로 측정되며 일반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항공수단등이 논점이 되며 철도, 고속도로, 시가지의 지하철·버스의 연결망이관심의 대상이 된다. 대전의 경우 대전을 직접 기차지로 하는 공항시설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공항이 인접해 있고 경부, 호남선, KTX역과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구축되어 있으며 도심지하철이 2006년에 개통되어 대단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4.2.3 관광인프라

최근 컨벤션 산업 활성화에 있어 관광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광인프라는 협의의 측면에서는 자연 관광자원과 인문관광자원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보다 광의의 정의를 적용할 때 쇼핑시설, 식음료, 교통수단, 엔터테인먼트와 연결된 인프라등이 포함된다. 지역내에서 컨벤션 유치를 희망하는 까닭 역시 자연, 인문관광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관련시설들을 동원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관광객 유입정도를 잘 나타내는 관광호텔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살펴볼 때 2004년 현재시점에서 대전시의 관광호텔이용객은 3,058천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 숫자는 2002년의 5,174명 보다 감소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수입의 면에 있어서도 2002년의 6,1379백만 원보다 2004년에는 44,272백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05; 26).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는 관광객과 단순 방문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 관광인프라를 논의하고 컨벤션과의 연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지의 입장객수나 수입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광객 통계만으로 대전시가 체재형 컨벤션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대전시 관광업체의 현황역시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작용하는 지 분석할 방법이 없다. 각 관광업체가 진행하는 컨벤션 기획, 유치, 관광으로의 전환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전의 관광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정도인데 계룡산, 동학사, 대청호, 보문산과 유성온천 정도로 국한되어 있어 관광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휴양시설이나 극장식 식당의 상황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으로 체재형 관광을 유인하기 어렵다.

4.2.4 수요 인프라

대전시의 수요인프라를 살펴볼 때, 대전의 컨벤션 산업은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연구인력, 과학기술의 물리적 발전기반과 더불어 21세기 국가의 기술적 도약거점인 대덕 R&D특구, 정부 종합청사, 3군본부의 입지는 컨벤션 산업의 기대수요를 충족한다. 다양한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의 입지와 외국어와 외국 생활경험에 풍부한 고급두뇌의 존재는 국내 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전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국제적인 학술회의의 유인요인으로 컨벤션 활성화에 대단히 유효하다. 대전시는 이러한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를 위한 다양한 고급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소가 20개 기관, 기업체

연구소가 22개 기관, 국공립사립 4년제 대학이 11개교, 투자기관의 연구소가 9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경험을 살려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며 질 높은 컨벤션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98년 정부제3청사의 대전입주에 따른 기대 또한 매우 크다. 대전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대전청사의 이전 에 따라 대전의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분석하는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생산효과는 1,876억 43백만 원, 다른 산업에 간접적으로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1,008억 59백만 원, 지역 내 소비증가가 가져온 생산유발효과가 2,659억 400만원으로 나타난다. 뿐 만 아니라 청사이전에 따른 고급인력의 대전유치는 대전지역의 컨벤션 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4.3 대내외 여건변화와 SWOT 분석

대전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첨단산업의 강점 분야인 IT, BT산업의 연구기반을 구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의 활용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지를 토대로 현재 대전시의 제반 여건에 대하여 SWOT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3.1 강점(Strong)

교통의 결절지로 컨벤션 산업의 진흥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고급직업인들에 의한 컨벤션 수요의 측면에서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대덕R&D특구, 대학, 정부청사, 3군 본부의 대전입지는 산학연 협력과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중요한 이점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인근의 청주국제공항, KTX, 황해경제권을 포함하는 물적 기반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으로 대전시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4.3.2 약점(Weak)

그러나 각 전문기관간의 네트워크형성의 결여는 컨벤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관련산업 및 지원산업의 미비는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의 관광자원은 약 30Km이상 떨어진 공주, 부여, 금산, 부여, 청양등지에 입지하고 있어 대전시의 관광자원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도심의 관광을 유인하는 요인에서는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대전시가 안고 있는 관광자원은 유성과

둔산지역을 활용한 식음료의 접대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전시가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느냐하는 점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도시 지향정책이 지역의 사회, 인문, 자연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유인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수립되었는가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관련, 지원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영세성을 띠고 있으며 국제회의에 대한 전문인력(회의기획자, 운영자)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서울 등 타도시에 의존하는 현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또 관련산업의 부족이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와 참가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의 면에서도 대전시의 컨벤션 여건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

4.3.3 기회(Opportunity)

향후 국제화 및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회의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대전은 이미 1993년에 3개월간에 걸친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 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대전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있어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대전시 컨벤션 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4.3.4 위협(Threat)

그러나 이상의 노력들은 대전시의 독특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역시 및 지역들이 전개하고 있는 활성화 노력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등도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기구를 조직하여 대응하고 있어 향후 컨벤션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대전시는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컨벤션 유치경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컨벤션 시설정비의 미비와 선도적 컨벤션 센터의 결여, 컨벤션 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의 결여라는 상황에서 지역정부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 결정방식은 실제로 대전시의 컨벤션 산업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상으로 대전시의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시의 현황과 컨벤션 인프라등을 살펴보고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컨벤션 산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대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유성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특급호텔의 경우 국제회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시시설의 가용면적의 개선 및 확충은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 오락이나 레저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부족은 컨벤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 상시 관광 가능한 유무형의 문화재 등 관광을 유인하는 요소의 부재는 컨벤션 유치결정에 있어 위기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컨벤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제 요인들을 고려 할 때 대전의 향후 컨벤션 산업의 전망은 전체적으로 밝지만은 않다. 결국 컨벤션 센터의 건립이나 컨벤션 정책이 지방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2010년 컨벤션 산업의 파급효과는 수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공허한 주장에 그칠 전망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컨벤션 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컨벤션 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호텔 숙박시설의 개선 및 확충, 교통통신기반의 구축 및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장의 정비를 위한 근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며 그 효율적 활용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쇄, 광고업, 시설 대여업, 통역업등의 연관 산업과 컨벤션 뷰로 및 컨벤션 협의체등을 조성하여 지역 컨벤션 산업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이 관주도의 하향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지역의 컨벤션 산업을 지원할 지역의 협의체 혹은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민간기구의 설립은 향후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들로 형성되는 컨벤션 지원시스템이나 협의체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컨벤션 산업과 지역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조건으로서 관광자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이벤트, 오락, 레저를 포함한다. 대전 지역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연계를 구상하고 관광자원의 광역적 이용을 구상하기 보다 실제로 대전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의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르다. 특히 대전시를 관통하는 뛰어난 교통 체계는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점이면서 반대

로 체재형 컨벤션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넷째 관련 행정기관과 관련, 지원 산업의 담당자들에게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홍보 전략의 구상,接客서비스의 교육, 환대정신(Hospitality) 등을 통한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증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산·학 연계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역내의 대학들과 컨벤션 현장에 종사하는 근무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암묵지의 형식지화, 형식지의 상용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연계체제의 구축은 바람직한 일이다.

참고문헌

- [1] 김용관, “경기도 컨벤션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회, 관광경영연구 창간호, pp 131-155, 1997
- [2] 김재민, “컨벤션 산업의실태와 육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호텔관광경영연구,11, 1999
- [3] 김한주,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부산지역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컨벤션 학회, 컨벤션 연구, pp145-174, 2005
- [4] 신형섭, “국제회의 유치전략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호텔관광경영연구,11, 1998
- [5] 신흥철, 손수진, “지역컨벤션 산업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컨벤션 산업 개발관점- 국토지리학회, 지리학 연구,
- [6] 여호근 김형철, “문화관광 가치창출을 위한 컨벤션 센터의 역할”, 한국컨벤션 학회, 컨벤션연구, 제5권 제2호 pp. 175-192, 2005
- [7] 오길창 이은용 이수범, “벤션업 진흥을 위한 CVB 활성화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회, 호텔경영학 연구, 제14권, 제2호, pp. 205-223, 2005
- [8] 오정환, “한국 국제회의 유치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호텔 외식경영학회, 호텔외식 경영학연구, 5, pp. 263-284
- [9] 이도현, “컨벤션센터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컨벤션 학회, 컨벤션연구, 제4권 제3호 pp. 141-158, 2004
- [10] 임봉혁, “광주, 전남지역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정보학회, 관광정보연구, 제21집, pp 263-284, 7월호, 2005
- [11] 주현식, 조현호, 여호근, 유영준, 『컨벤션산업의 이해』 도서출판 대명, 2004
- [12] 정근식, “문화에 기반한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중요성” [지역문화의 현실과 진단] 한국관광정책연구원 포럼 기초강연, 2005

- [13] 황희곤, 김성섭, 『미래형 컨벤션 산업론』 백산출판사, 2003
- [14] Ansoff, H. I., Corporate Strategy, McGraw-Hill. (広田寿亮訳 (1969), 『企業戦略論』 産能大学出版部) 1965
- [15] Astroff, M. T. and Abbey, J. R., Convention Management & Service. AH & MA. 1998
- [16] Camagni, R.(ed), Innovation Networks, Belhaven Press, 1991
- [17]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1988
- [18] Cooke, P. & Morgan, K.,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Univ. Press, Oxford. 1998
- [19] Dore, Ronald,. Goodwill and the Spirit of Market Capit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34 , pp 459-82, 1983
- [20] Granovetter, Mark.,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pp. 481-510. 1985
- [21] Krugman, P., Geography and Trade, The MIT press, 1991
- [22] McCabe, V., Poole, B., Weeks, P., & Leiper, N.. The business and Management of Conventions. John Wiley & Sons. 2000
- [23]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馬場啓之助訳, 1966 『経済学原理II』 東洋経済新報社)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Printer Publisher
- [24] Piore, M. J and Sabel, C. P.,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Basic Books, 1984
- [25] Porter, M.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土崎坤 中辻萬治, 小野寺武夫, 戸成富美子 譯(1992) 『国の競争優位 上下』ダイヤモンド社, 1990
- [26] Porter, M.E., On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竹内弘高訳1999 『競争戦略論I, II』ダイヤモンド社, 1998
- [27] Ruthford, D. G. . Introduction to the Convention, Exposition and meeting Industry. NY: Van Nostrand Reinhold, 1990
- [28] Saxenian, A., Regional Advantage: Cui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29] Weirich, M. L., Meeting and Conventions Management. Delmar Publisher Inc. 1992

권 병 옥(Byung-Oug Kwon)

[정회원]



- 1990년 2월 한남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1999년 3월 日本上智대학 사회학과(석사)
- 2003년 9월 日本上智대학 사회학과 (박사)
- 2000 - 현재 한남대학교 강사 및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경제사회학 및 산업 사회학